

농업 노동력의 여성화와 대응방향

이영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e Increase of Female Labor in Agriculture and the Future Coping Directions.

Lee, Young Dae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I. 서 론

농업분야에서의 “고임금시대”가 나타남에 따라 부부노동력 중심의 농업경영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성행위의 규제, 자녀출산과 양육, 사회정서적 지지, 경제적 생산과 소비등의 기능(function)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의 기능 중 여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특히 농업은 그 특성상 가족농(family farm)이 대부분으로 가구단위로 농산물의 생산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중요해지고 그만큼 농가여성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농가에 부녀자가 없으면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 여성이 중요해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점차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와 그에 따른 문제 및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들은 ①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정도를 구명하고, ② 그에 따른 문제점 즉 능력발휘를 억제하는 조건을 밝혀내고, ③ 여성들의 농업노동력 분야에서의 능력향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의 농촌여성의 농작업 참여에 관한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농림수산부의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농가경제조사결과,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현황

1. 농가의 여성인구수와 경제활동 참가 정도

농가 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75년대의 13,244천명에서 1992년 5,707천명으로 거의 반 가량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 비율은 1992년 13.1%이다. 성별로는 1982년 이후 농가 인구중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아 1992년의 경우 남성이 2,762천명에 여성은 2,944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율로는 6.6%가, 인원수로는 182천명이 많았다(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농가·비농가별,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65년의 41%에서 1991년에는 62%로 증가하였으며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농가여성의 그것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30세 이하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 여성 농림어업취업자의 취업상태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

까? 최근 농촌에도 비농업 분야의 취업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분야가 대부분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농가인구중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농이 증가하여 농업노동이 노령화·부녀화되고 있는 경향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 농작업에 참여가 적었던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가가 증대되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여성의 비율은 1991년에 농림어업직의 45.2%에 달하였다(남성이 1,687천명, 여성이 1,393천명). 이 비율은 서비스직과 판매종사자 다음으로 많았다. 성별 농림어업 취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중 여성의 비율이 40세 이상에서는 40%~50%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19세 이하는 불과 7%, 20~29세에서는 31.6%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여성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을 살펴 보면 1991년의 경우 50~59세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25%, 40~49세가 22.0%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농작업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과거 여성은 농작업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으나 농촌에서 청년층과 남성인구의 이농에 의하여 이제는 남성들만큼이나 주도적으로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가주부의 99.6%가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농사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이 0.4%),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가주부 가운데 '전적으로 맡아서 일한다'는 19.7%,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일한다'는 61.8%,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이다'는 16.2%, '거의 하지 않는다'는 22.0%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맡아서 일한다'와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일한다'를 합쳐 81.5%의 농가주부가 주노동력으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농가주부의 83.3%는 농업노동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권영자의 3인, 1987).

농업생산에서의 여성 노동증가를 보여주는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65년 이후 농가의 노동투하량중 성별로 차지하는 시간 및 비율을 살펴

보자. 농가노동량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 27.5%에서, 1985년의 42.8%, 1991년의 48.1%로 높아지고 있다. 1991년의 농가노동 투하량을 성별 및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용(품산)노동과 품앗이 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품앗이 노동 65.3%, 고용노동 58.2%).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 부자집 안주인은 일부자'라는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농가 여성의 노동투하량을 살펴보면 6월이 107.14환산 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10월이 93.39환산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5월과 6월, 9월과 10월이 농번기이고 4,7,8월은 여유가 있는 편이며, 11월에서 3월은 농한기로 나타났다(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

영농형태별, 작업단계별 농작업 상태를 살펴보면 논농사는 모든 작업단계에서 남성의 참여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매기, 모떼우기, 모내기에 여성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논갈이, 비료주기, 농약살포의 단계에서 여성 참여율이 낮다. 밭농사에서는 씨뿌리기, 김매기, 옮겨심기 작업은 주로 여자가 하는 편이며(이들 작업의 기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확, 타작, 포장은 부부가 같이 하는 비율이 높았다. 과수농업에 있어서 봉지씌우기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슈아내기, 수확, 포장등은 부부공동으로 땅파기, 농약살포, 거름주기의 단계에서는 여성이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에서는 계란 모으기만이 여성이 주도적으로 할뿐 축사청소, 풀베기, 사료배합, 사료주기, 젓짜기, 씻기기 등 거의 모든 작업은 남성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권영자의, 1987).

이와 관련하여 농가주부의 농기계이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조사대상 농가중 농기계를 보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었으나, 농가주부의 농기계 이용율은 매우 낮았다. 또 농업 참여 여성의 0.6%만이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다. 농가주부의 농기계 이용율은 동력분무기가 3.6%, 동력탈곡기 0.9%, 이앙기 0.7%, 경운기 0.3%의 순이었다. 그러나 농기계이용에 필요한 농기계교육훈련 경험자는 3%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권영자의, 1987).

남녀별 농업노동 임금율 살펴보면 농업노동 임금에서 성인은 1991년 17,187원으로 성인 남자의 24,444원의 70.3%에 달하고 있었다(농협중앙회, 1991)¹⁾

III.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

1. 농가주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 부담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이 각종 가전제품의 도입과 함께 감소되고 있다. 즉 농가에 세탁기의 보급율이 낮은 것(농림수산부의 농업기본통계에서는 1991년 46.8%)을 제외하고 다른 가전제품은 거의 다 보급되었다. 그러나 ① 농촌은 다세대 비율이 높고 가족수가 많으며, ② 농촌은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③ 농촌 남성의 가사업무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다²⁾.

먼저 농촌가정은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의 경우 3세대 이상 가구가 17.4%로 도시가정의 10.8%에 비하여 높음), 가족수도 최근에 도시가정의 가족수와 비슷하지만 그동안은 농촌가족의 가족수가 도시가족에 비하여 많았다. 또 농촌가정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촌가정은 도시에 비하여 보수적인 편이어서 농촌주부의 역할이 많은 편이다.

또 농촌가정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농촌가정은 도시가정에 비하여 입식부엌, 수세식변소, 목욕시설(특히 온수시설)등의 주거환경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상수도시설등 편의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어 이에 따라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입식부엌시설은 도시 59.5%, 농촌 30.0%로 수세식 화장실은 각각 62.7%와 14.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 목욕시설은 52.9%

와 15.8%, 상수도시설은 도시가 91.2%이고 농촌이 30.0%로 역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통계청, 1990).

최근 농가의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농가의 가사노동 시간이 경감되고 있으나 아직도 농촌가정의 남성들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빨래등의 가사일에 대한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25년간 몇차례에 걸쳐서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이 분석되었다. 즉 농가주부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부담으로 인하여 농번기에는 농업경영주보다 더 일하고 있다. 즉 농번기 농가주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시간이 농업경영주보다 더 일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농업노동 7시간 52분, 가사노동 4시간 52분, 계 12시간 44분으로 남편의 11시간 25분에 비하여 79분이나 많았다.

구체적으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노동이 1966년의 3시간 25분에서 1979년 5시간 17분으로 늘었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1983년 4시간 45분이 되었으며, 가사노동시간은 대폭 축소되어 1966년 8시간 49분에서 1983년 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노동시간이 1966년 12시간 14분, 1973년 11시간 19분, 1979년 10시간 46분, 1983년 9시간 45분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농한기에 비하여 농가주부들이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 농번기 농가주부의 노동시간이 1979년 14시간 14분, 1983년 13시간 23분으로, 남편의 노동시간인 1979년의 12시간 49분, 1983년 11시간 51분에 비하여 각각 85분과 92분이 더 많았다. 농가주부, 농가 경영주의 농업노동시간은 줄어드나 주부의 가사노동은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농가주부의 하루 일과를 보면 농번기에는 4시 30분-5시에 기상하는 경우가, 취침은 9시 30분-10시가 가장 많은 것이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 나타났

¹⁾ 김주숙의 조사(1982)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은 남여간 농업노동 임금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다.

²⁾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이 힘들다에 농촌 여성의 71%가 응답하였다.

으며, 특히 5시 이전에 기상하는 주부의 비율이 89.6%이고, 10시 30분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도 49.7%였다(권영자의, 1987).

전반적으로 볼때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시간은 남자보다 2~2.5시간 가량 적으나, 가사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15~2시간, 농한기에는 2~3시간 더 길어 농촌여성은 1년을 통털어 남자들보다 하루에 2시간 가량 더 많은 노동을 한다. 그 결과 농촌여성들은 일이 힘들어서 전직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2. 농촌여성의 건강악화

농업노동에 여성참가증대에 의하여 농촌여성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다. 농부중은 농업생산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 특히 중년의 기혼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질병개념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일군의 증상으로서 하나의 질환 또는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농부중의 증상으로 확인된 증상 중 편통, 요통, 수족의 일시적 마비현상, 야노, 습참의 5개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그외에 불면, 현기증, 복부팽창 또는 충만감 등이 있다.

9개의 농부중 증상 가운데 손발저림을 호소한 응답자가 6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요통(62.1%), 어지러움(61.6%), 견통(60.6%)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4가지 증상이 농부중 가운데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위의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의 증세를 나타낸 경우를 농부중 증상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의 65.4%가 농부중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농약중독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11.9%였으며(그중 47.7%가 치료를 받았어야 하였으며 51.5%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전체의 0.7%가 농기계 상해경험이 있었다. 농업노동참여가 많을수록 농부병 증상수가 높았고, 신체증상 호소수가 높았으며, 정신증상 호소수도 농업참여가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었다(박정은 외 4인, 1987). 그러나 농촌여성의 건강에 있어서의 문제는 웬만한 병은 참고, 남편이나 자녀를 먼저 치료한 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 문제이다.

3.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발생

농업노동력의 여성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청년의 결혼문제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 청년들은 매우 힘들다가 37.9%, 힘들다가 42.5%로 전체적으로 80.4%가 힘들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다(최민호 외 2인, 1985).

농촌청년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농촌미혼여성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과 미혼여성들이 농촌청년과의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하는 미혼인구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미혼여성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하는 이유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도시를 동경해서(이것들은 도시의 흡입요인이라 볼 수 있음)와 농촌의 전통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와 농촌이 가난하여(이것들은 농촌의 배출요인이라 볼 수 있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미혼여성의 도시이동에는 도시의 흡입요인이 농촌의 배출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농촌의 배출요인의 하나는 농업노동에 여성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다. 미혼여성들이 농촌청년과 결혼하기를 기피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농가주부의 노동이 큰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여성 인구의 이농에 따라 농촌지역에는 미혼 남성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편이다. 미혼여성 인구 100명에 대하여 미혼남성 인구의 수를 성비라고 하는데 1990년의 경우를 지역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도시가 127.4, 읍지역이 143.7, 면지역이 176.4로 각각 나타나 면지역일수록 미혼여성인구에 비하여 미혼 남성인구수가 많았다(통계청, 1990).

농가주부는 농사일과 가사일로 농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농업사정은 최근들어 매우 나빠지고 있고 농촌의 생활환경도 도시에 비해 크게 불리한 실정에 있다. 이것 또한 미혼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청년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4. 농촌여성의 영농의사 결정에 참여낮음과 부정적 의식문제

1년 농사계획을 남편 혼자 결정함이 51.6%, 부인 혼자 결정함이 11.5%, 둘이 같이 결정이 27.9%, 기타 가족이 결정이 8.9%로 나타났으며, 농번기 때의 매일 매일의 작업 결정도 남편 혼자 결정함이 43.9%, 부인 혼자 결정이 14.0%, 둘이 같이 결정이 32.5%, 기타 가족이 결정이 9.6%로 나타났다. 농촌여성들이 영농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주숙, 1982).

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농업관이 부정적 인바 농사짓는 것에 대하여 어쩔수 없이 농사짓는다가 68.4%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비율은 25.3%에 불과하였다(김주숙, 1982). 이렇게 여성들의 농업관이 부정적이어서 농업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많이 갖거나, 실제로 이농의사를 농촌여성들이 먼저 나타내고, 자녀들에게 농업을 시키려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IV.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에 대한 대응 방향

앞에서 고찰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관련 주요 지표를 요약하면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대적인 높음,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중 여성취업자 비율의 증가, 농작업 활동에 있어서 여성 비율의 증가등이다. 또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로는 농가주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부담, 농업참여 여성들의 건강악화, 농촌청년의 결혼어려움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에 따른 대응방향으로는 ① 여성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증대, ② 농업노동의 편리화와 능률화를 통한 성력화 추진(여성에 대한 농기계 교육의 강화와 농업기술의 합리화를 포함), ③ 농가주부의 농번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배려(작업일정 편성 추진 및 농가주부의 농번기 적정 휴식 기회 제공 포함), ④ 농업노동 과다에 의한 피로누적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등에 의한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마련, ⑤ 여성농민에게 일정한 비율의

할에 및 ⑥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여성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농가인구중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농으로 농가주부의 농업노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농가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농가 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훨씬 높다. 그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농사일을 하고 있어 전체 농사일의 반가량은 여성이 하고 있으며, 경지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농업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었다.

영농작업별로는 논농사의 김매기, 모떼우기, 모내기, 밭농사의 씨뿌리기, 김매기, 옮겨심기, 과수농사의 봉지씌우기, 축산의 계란모으기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의 종류이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따라 농촌여성의 새로운 역할이 증대되리라 보는데 그에 비추어서는 농촌여성의 역할 평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 농촌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때 농촌여성들이 더 만족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농촌여성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노동의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농업이 힘든 것을 줄이기 위한 성력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농사일이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농가주부의 83.3%나 되고 있는데, 농업노동의 힘들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를 이용할 줄 아는 농가주부의 비율과 이를 위한 농기계 교육을 이수받은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기계 교육에서 부녀자에 대한 고려가 증대되어야겠다. 그밖에 농업노동의 편리화, 능률화등의 작업분담과 농업기술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겠다. 농촌여성들에 대한 농기계교육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농기계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

셋째, 농가주부의 농번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2중 부담에 대한 경감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농가주부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2중부담이 있는데(특히 농번기) 그 경감방안으로서 농번기 학교의 학교급식 확대, 남편의 이해와 협조(도시의 맞벌이 부부와 같이 주부는 들에서 30분 빨리 집으로 오

도록 하는 등의 남편과 가족의 배려와 작업분담토록 지도), 정부의 주택개량지원증대 및 농촌에 많이 거주하는 노인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농촌 여성의 노인부양경감을 통하여 농가주부의 가사 부담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네째, 농촌여성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농업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손발저림, 요통, 어지러움, 건통등의 농부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더구나 웬만한 병은 참고 남편이나 자녀를 먼저 치료한 다음 나중에 본인이 치료를 받는데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농촌여성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건강을 고려하여야겠다.

다섯째, 여성농민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애하여야겠다. 1992년 농어민후계자 선정에서 여성은 불과 2%에 불과한데(농림수산부, 1992년 농어민 후계자 선정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 농업노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농업과 관련한 농가와 지역사회에서 더 많으면서도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농가내에서는 영농의사 결정(예: 생산, 자금, 판매계획등)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증대하여야겠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농업관계 회의에서도 여성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또 일본의 '농산어촌 부인의 날' 같이 '농촌여성의 날'을 정하거나 농촌부인들이 정기적으로 휴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일본의 경우 '부인농업사'나 '농촌여성 상담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³⁾.

여섯째,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겠다. 여성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하였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경제권도 가져야겠다. 가사지출에 있어서 경제권을 인정하여야 하겠다.

일곱째, 농촌여성에 대한 정기적인 휴일을 인정하여야겠다. 일본의 경우 20, 30대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휴일을 바라는 요구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농촌여성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조

사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농업노동 참여 농촌 여성에 대하여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기적인 휴일을 갖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농촌여성들이 이제까지 농업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앞으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조건을 충분히 정비하여야겠다.

V. 결 론

여성의 농업담당자로서의 역할은 현재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농작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각종 여건이 미비되어 있다. 여성들의 농작업 참여가 남성들의 보완적인 것이 아닌 대등한 정도의 것이 되도록 여성들의 능력발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촌여성들의 농작업 참여의 소중함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농작업 참여에 따른 각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작용을 최소화시키며 제도적으로 여성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기적인 휴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일본의 경우도 1992년 6월 10일 발표된 일본의 신농업정책에서는 여성의 농업 담당자로서의 능력발휘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하겠고 여성들의 농업분야에서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마련이 주요한 정책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식, 1984, "한국여성농업노동자 계급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영자 외 3인, 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87 연구보고 200-2
- 김영란, 1989, "한국농촌여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여성연구」 7: 2, pp. 77-93

³⁾ 일본의 경우 1993년에 24개 부현에서 농촌여성 대상 자적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